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목적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89호 현대불교
2010년 6월 23일(음 5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과감히 뛰어넘을 줄 아는 패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그 세월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오래 되지 않았다고 해도 되고 오래 됐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세월 아닌 세월이 이렇게 가는 동안 누구나가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똑같이 알 수도 없고, 또 똑같이 차원이 높아지지는 않더라도 사회에 나가서든가 또는 가정에서라도 자식을 기르는 데서라든가, 자기가 해 나가는 소임에 따라서 모든 걸 대처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또 세상도 좋아질 테고, 자손들도 대대손손이 좋아질 테고 여러 가지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공덕을 쌓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잘되자고만 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잘되는 게 있어야 못되는 게 있고 못되는 게 있어야 잘되는 게 있는 까닭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만 있어서는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낮은 곳에서만 있어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반 이렇게 걸쳐 놓고 교차로를 넘나들면서 고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저 나는 절에 그냥 다니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내가 섭섭하죠.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생을 두고 거듭거듭 태어나면서 마음 졸이고 모든 것을 버려서, 이렇게 고구마 같고, 난장이 같고, 또 하나도 보잘것 없이 못한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더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상 사람은 마음대로 잘나게 태어날 수도 없고 못나게 태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해서 못나게 태어난 것도 재주명어리 아닐까요? 허허하...

그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진리도 하나요, 부처님 법도 하나니까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로 보면, 여기 여러분 수만 명이 다 깨친다 하더라도 일불(一佛)이며, 일법(一法)이며 바로, 차이 없는 도리인 둥근 원리입니다. 이런 고로 우리



그림 · 최주현

가 좀더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생각해서, 일을 할 때나 잠을 잘 때나, 또는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항상 자기 뿌리를 잊지 않을 것을 자기 뿌리에 맹세하는 반면에 자기 짝은 열심히 뛰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죠? 부처님이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할 테니 너는 뛰어라.' 이랬다고요. 그 말이 보통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럭하고 가시는데요, 여러분은 패기가 없어요. 과감히 뛰어넘을 줄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더 있다 죽으나 덜 있다

죽으나, 이따 죽으나 또 먼저 죽으나 죽는 것은 한 번, 똑같이 죽어요. 하늘이 무너져도요.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뛰어넘질 못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인데 말입니다. 죽으나 사나 뛰는 마음 자체가 바로 피안으로 넘어서는 그런 도리입니다. 한 생 한 생을 이렇게 살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쩌나, 저렇게 하면 어쩌나.' 하기 때문에 넘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사적으로 이걸 해야 한다는 거, 결사적으로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

왜 그런가? 여러분이 각각 소임을 다 따르며 가지고 있습니다. 교직이면 교직, 회사면 회사, 장사면 장사 이렇게 죄 제가꿈들 다 가지고 있는 소임에 따라서 내가 자꾸 터득을 하면 그게 개척이고, 그게 계발이고, 그게 바로 나를 내가 승화시키는 길입니다. 억지로 높은 자리를 뺏아서 올라갈 양으로 애쓸 필요 없이, 자기가 맡은 소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 나가는 과정에서,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해 나가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마음의 발전을 말합니다.

마음의 발전이 되면 스스로 행도 발전하게 되므로 그것은 바로 여러 사람들에게 다 좋은 일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청차만별의 소임이 다 발전한다면 그 뒤에 발전을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텅달아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면서 나간다고 해 봅시다. 그 연구진들이 제가꿈들 연구하고 토론을 해서 그것이 이 세상에서 보람 있는 연구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열 가지를 연구했다면 그 열 가지 연구한 걸로 인해서 이 세계가 다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름이 종교지 사실은 어떻게 해야 인간으로 나올 수 있고, 나와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무엇을 해야 미래에 모두 공덕이 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체 만물만생이 모두 공생(共生)이면서, 공체(共體)면서, 공심(公心)이면서, 공용(公用)이면서 공식화(公食化)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했듯이, 우리는 조그만 거든 큰 거든 한 번씩은 다 돼 봤다고 생각합니다. 돼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겠습니까?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오지, 그냥 밑에서 날아서 올라오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오셨을 겁니다. 이렇게 모두 첨단 위치까지 다 그냥 한 발 한 발 밟고 넘어왔던 애입니다.

이렇게 한걸음씩 여기까지 올라온 고등 동물로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만이 진자 사람으로서 일체 만물을 다 먹일 수가 있고 되게 할 수 있는가? 이 소리가 '떡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다 먹이고도 떡 하나가 되남더라.' 하는 소리거든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모두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실천을 하는 데는 유(有)의 법이나 무(無)의 법이나 똑같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똑같이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어야만이 그게 아주 좋은

26면으로 계속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담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 ① 일 정 : 2010. 6. 26(토) 오후 1시부터 ~ 6. 27(일) 오후 6시까지
 - ②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